

큰 빛은 예교회 가정에 배지

2024. 10. 16. WED



가정 예배 순서

예배준비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주세요
인도자 / 기도자 등의 순서를 정해주세요

사도 신경

다 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양

“부르신 곳에서”

다 같이

각 가정마다 악기를 가지고 아래 찬양 혹은 원하시는 찬양을
선곡하여 찬양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절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2절 사랑과 진리의 한줄기 빛 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코러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브릿지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 곳에서 예배하네

대표 기도

가족 중 한 명이 기도합니다

기도자

성경 봉독

창세기 12장 1~3절

다 같이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신 사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 요나, 그리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신약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내가 언제 부르심을 받았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는 부르심이란 무슨 특별한 이적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된 것 자체가 바로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명하신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천차만별입니다. 남녀 노소의 구별이 없음은 물론이고, 직업적으로나 신분상으로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자 부르신 때와 장소도 그야말로 천태만상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을 당할 때에 그 주변에 있던 강도처럼 죽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아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펴 보면서 가정과 개인의 삶에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구원하실 목적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차적인 목적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부르심으로 소명하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 죽은 상태, 혹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상태였다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는 죄악 속에서 죽어 있었으며 이는 모세도, 엘리야도 모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둘째,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고난 본질과 환경에 따라 자신의 일을 하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구원을 위한 부르심을 '일차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부르심은 '이차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맞는 일들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왕으로, 사도로, 또는 목사나 교사, 복음 전파자로 일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1~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십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받은 달란트를 통해서, 둘째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가정과 개인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성도는 두 가지 소명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일차 소명은 받았지만 이차 소명은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점은 이차 소명 중에서 특별히 목사나 선교사, 혹은 특수한 일에 헌신하는 것만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후에는 그 즉시부터, 그리고 때와 처지에 준하여 이차 소명도 마땅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의 형편과 때에 따라 크든 작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게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구속 사역을 진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회개, 중생할 때, 또는 오랜 신앙의 경륜을 쌓은 각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새로 주시거나 더하시거나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일들을 위한 부르심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오도록 하시기 위해 부르셨고, 요나는 니느웨 선교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이런 특수한 목적을 가진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을 부르실 때 각각의 처소에서 부르시고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도록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이웃에게 덕을 나타낼 수 있다면 우리가 바로 그 일에 소명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어떤 일에 소명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대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얼마나 합당하게 열심히 행하느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 늬

다 같 이

1.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일차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2. 달란트와 은사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3. 내가 현재 맡고 있는 역할이나 직업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있습니까?

중 보 기도

--- 베이지역과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

다 같 이

1. 11월 선거 때 성경의 가르침으로 되돌리려는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2.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의로운 정책을 펼치도록
3. 허리케인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4. 베이 지역을 덮고 있는 맘몬과 음란의 영이 떠나가도록
5. 베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도록

마무리 기도

다 같 이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깨달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웃에게 덕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복을 누리는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기도 문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